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NEWS

LETTER

2022 Vol. 02

국제재단

코로나 위기 속, 그간의 행적을 담다

방방특독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후배 이끄는 전 세계의 한양인!!

기획뉴스

2022 Giving Day Hanyang 개최합니다

기부안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최고의 대학.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THE BEST *for a*
BETTER WORLD
HANYANG UNIVERSITY



※ 출처 : 한국기업데이터 (KED), 2020

국내 최다 CEO를 키운 대학!

누가 그 기록을 깰 수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한양의 기록은 오직 한양만이 깡니다
시대가 한양을 배웁니다!



백남학술정보관

사진의 건물은 한양대의 중앙도서관인 백남학술정보관이다. 1848년 한양공과대학 설립과 더불어 도서관으로 시작한 백남학술정보관은 1959년 중앙도서관 건물 준공 이후 1981년 증축공사를 거쳐 1998년 현재의 건물로 신축 이전하였다. 현재는 캠퍼스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여, 150만여 책의 장서와 12,500여 종의 연속간행물, 83,000여종의 전자저널을 보유하며 한양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학문 연구 및 학습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Vol. 02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이 만들어가는 뉴스레터

CONTENTS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04 국제재단 소개

국제재단을 소개합니다
국제재단 이사진
협력 동문회

06 재단소식

코로나 위기 속, 그간의 행적을 담다

08 지회소식

미주지역 동문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동문 네트워크

11 방방톡톡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후배 이끄는 전 세계의 한양인!

14 기획뉴스

2022 Giving Day Hanyang 개최합니다

16 지금 한양은

한양 주요 4대 News

18 통계로 보는 한양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한양
국내외 성과 보여준다

사랑의 실천

20 발전 기금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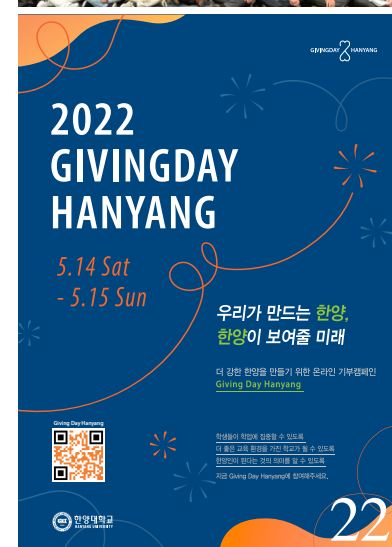
한양을 키우는 명예, 미래를 만드는 자부심

22 기부금 현황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

23 기부 안내

모교 한양대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투자



국제재단을 소개합니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은

글로벌 100대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도약하는 한양대학교의 발전에 함께하고자 하는 동문 및 일반인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국제재단 이사회

이사장 이종혁(건축·공업경영 58/북가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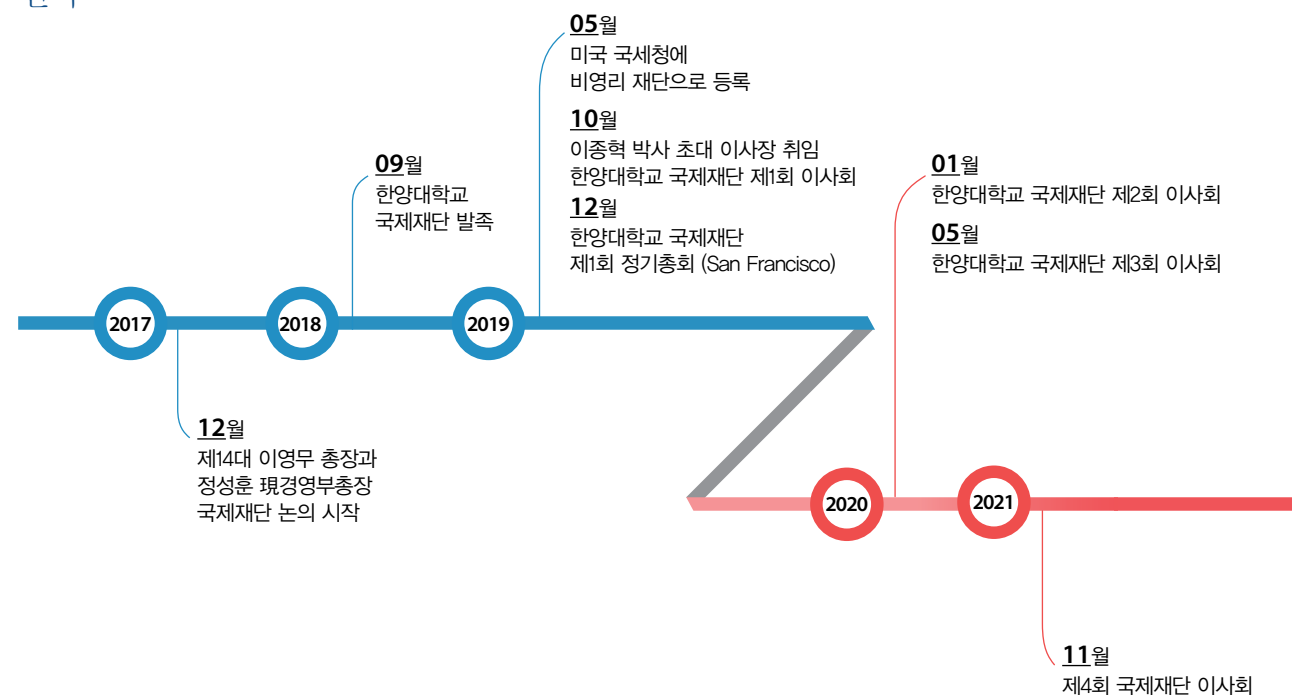
부이사장 이찬희(건축공학 73/뉴욕) 남영근(토목공학 76/남가주)

사무총장 노상일(보험경영 89/HGCEO)

재무이사 이강일(체육 82/북텍사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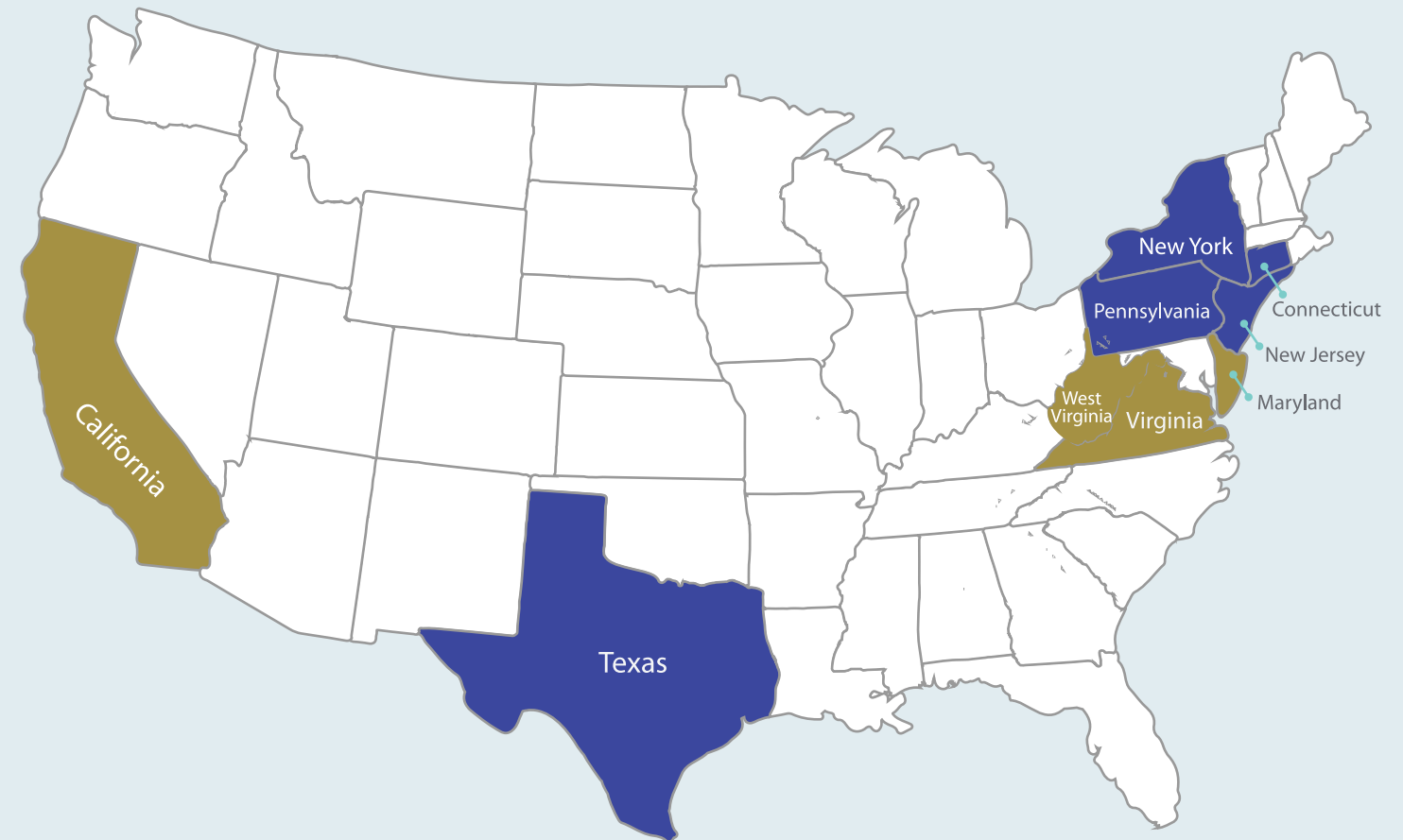
이사 국명호(화학공학 67/뉴욕) 신한준(행정 86/남가주) 정창우(경영 83/남가주)
 이장한(화학공학 61/뉴욕) 최명식(광산공학 61/뉴욕) 김영기(기계공학 63/워싱턴)
 소병훈(원자력공학 77/워싱턴) 이국진(산업공학 73/조지아)
 최명섭(체육 81/북텍사스) 김현겸(화학공학 78/북텍사스)

연혁



협력 동문회

미주 전역의 동문들을 위해, 국제재단 본부를 중심으로 남가주, 뉴욕, 북가주, 북텍사스, 워싱턴 동문회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동문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는 동문회에서는 재단 본부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info@hanyangfoundation.com | (510) 836-7400

※각 지역의 동문회를 후원하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재단을 통해 동문회를 후원하시면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양 가족을 찾습니다!

한양 동문이지만 동문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옆 QR 코드로 접속하셔서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먼 이국 땅에서 '한양'의 이름으로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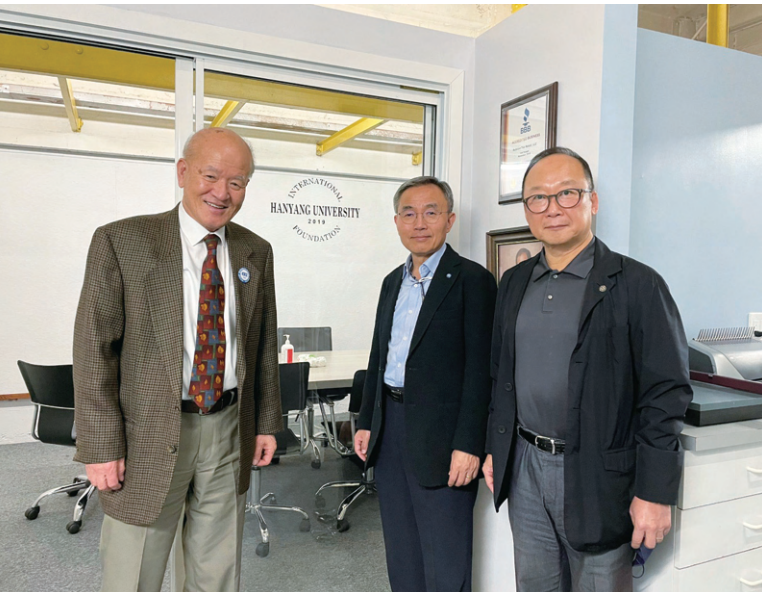
코로나 위기 속

한양국제재단, 그간의 행적을 담다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국제재단 제 4회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이종혁 이사장,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황희준 대외협력처장(당연직이사)이
국제재단 사무실에 직접 참석했으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각 주의 이사진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제4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종혁 이사장, 김우승 총장,
황희준 처장(왼쪽부터)



한양국제재단 사무실에 설치될 새로운 현판 디자인

한양대학교 국제재단 제4회 이사회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국제재단 제 4회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이사회는 이종혁 이사장,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 황
희준 대외협력처장(당연직이사)이 국제재단 사무실에 직접
참석했으며, 코로나 팬더믹으로 인해 각 주의 이사진들은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백종한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
행되었고, 이종혁 이사장과 김우승 총장의 인사로 이사회
의 시작을 알렸다.

백종한 사무국장의 재단 재정보고를 통해 기부 현황과 기
금운용에 대한 발표가 먼저 진행되었고 국제재단 임원 추
천이 이어졌다. 이번 이사회를 통해 그간 공식적이었던 사무
총장직과 재무이사직에 새로운 임원이 선출됐다. 사무총장
에는 노상일 동문이, 재무이사에는 이강일 동문으로 선임
되었다. 노상일 동문은 현재 HGCEO 동문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이강일 동문은 북텍사스 동문회 회장직을 맡고 있
다. 김우승 총장은 새로운 임원진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국제재단에 힘 써주길 당부하였고, 이어서
이종혁 이사장은 해외 대학과 같이 다양한 기부 캠페인의
시도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재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황희
준 처장 또한 국제재단 관련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본교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새로운 임원진과 함께
국제재단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국제재단 신임 임원 인사말



노상일 (보험경영 89)
한양국제재단 사무총장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의 사무총장을 맡게 된 노상일 입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명문 대학을 넘어 글로벌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향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2015년부터 7년 연속 서울캠퍼스는 물론, ERICA캠퍼스까지 모두 TOP 10에 오르는 쾌거에 마음이 참 뿌듯하였습니다. 더욱이 한양 발전에 힘이 될 수 있는 국제재단에 사무총장으로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우리의 모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작지만 힘을 보탤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남가주에서는 한양대학교 글로벌 최고경영자과정(HGCEO)이 올해로 9기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HGCEO 총회장을 맡으며 느낄 수 있는 것은 미 전역에서 정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것은 차별화된 커리큘럼과 현업과 강단에서 최고 평가를 받고 있는 교수님들을 엄선하여 만나게 해주는 한양대학교의 노력이 함께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한양의 교육을 널리 전할 수 있어 참 뜻깊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선배님들의 뜨거운 모교사랑과 실천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한양의 건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을 한양대학교 국제재단을 통해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과 82학번 이강일입니다. 재무이사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어 한편으로 걱정도 되지만, 모교 한양과 우리 동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한양대의 괄목할 만한 성장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면서도, 한양 동문으로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제재단은 모교 한양이 세계 일류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세계 동문들이 함께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양 가족들과 자주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미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동문들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모교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헌신과 봉사로 묵묵히 재단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혁 이사장님과 여러 이사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모교를 위해 사랑의 실천을 해주고 있는 동문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재단과 한양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일 (체육학 82)
한양국제재단 재무이사

코로나 위기 속 피어나는 사랑

코로나 팬더믹의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위대한 '사랑의 실천'은 이어져갔다. 황규빈 동문은 국내 전자계열 CEO를 가장 많이 배출하며 전자 산업을 이끌고 있는 융합전자공학부의 전자관 신축을 위해 2백만 달러의 건축기금을 기부했다. 박화영 동문 또한 후배 음악인에게 보다 쾌적한 실기 공간을 제공하고자, 박화영 음악관 건립 기금 100억 중 20억을 국제재단에 기부했다. 이종혁 이사장은 새터민 학생들을 위한 기부를 지난 4년간 이어왔으며 올해도 재단을 통해 모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민혜경 동문 또한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기금을 만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다. 이외에도 모교 한양의 발전을 위해 남가주 동문회, HGCEO 동문회, 노상일 동문, 장석진 동문이 국제재단에 기부해주었다. 그리고 2021년 연말, 황규빈 동문, 이종혁 이사장, 김경숙 동문의 깜짝 기부를 통해 한양을 향한 동문들의 사랑이 재단에 전해졌다. 특히 황규빈 동문이 기부한 2백만 달러의 장학기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려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 같은 기부를 통해 동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후원자가 되고, 후배들은 한양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2021년 황규빈 동문과 김우승 총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19년 박화영 동문기업 Incoco Products 방문 당시

동문회 소식을 전합니다

워싱턴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Washington, D.C.



워싱턴 동문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동문 단체사진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기록 영상 중 한 장면

뉴욕 동문회 2021년 추계 동문회장배 골프대회

New York



메이플 무어 골프장, 뉴욕 동문 단체사진

워싱턴 동문회(회장 소병훈)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4월 16일 토요일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The Westin Tysons Corner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가졌고 100여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그간의 활동을 기록한 동영상 상영을 비롯해 50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동문들이 술선 수범하여 옛 사진들과 기록들을 모아 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가 컸습니다. 또한 창립 50주년의 의미를 더욱 상기시키기 위해, 김영기 준비위원장을 필두로 각 임원진과 힘을 모아 워싱턴 동문회 50년의 역사를 담은 기념 책자를 발간 하였습니다. 책자에는 총장과 총동문회장의 축사, 역대 회장 명단, 그리고 49학번 대선배에서부터 1학번 후배까지 다양한 선후배들의 축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친구세대가 한데 어울려 50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을 모은 아름다운 Booklet을 발행하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 신승철 동문이 신입회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소병훈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5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5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동문회를 이끌 예정입니다. 워싱턴 동문회는 50년의 역사와 함께 다시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여 보다 많은 동문들과 모교 한양과 동문회의 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입니다.

뉴욕 동문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021년 10월 23일 뉴욕 주 화이트플레인스에 위치한 메이플 무어 골프장에서 '2021년 추계 동문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한양대학교 동문 및 동문 가족 45명이 함께 참가하여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과 우의를 다졌습니다. 부문별 우승으로는 일반 송순호, 시니어 원준우, 여자 이복희 동문이 차지했습니다. 메달리시트는 김경태 동문, 남녀 롱기스트는 김병세 동문 부부가 나란히 수상했으며 니어리스트는 게스트 윤여정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날 행사를 통해 동문 상호간 우정을 돈독히 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상식 후 뉴욕동문회 이찬희 회장은 참석한 동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 동문 골프대회를 기약했습니다.

북가주 동문회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5기 위촉식 및 동문 만찬 행사

San Francisco

북가주 동문회(회장 엄태석)는 2017년도부터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이하 멘토단)을 위촉하여 후배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31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멘토단 5기 위촉식과 북가주 동문회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 김우승 총장님이 방문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었으며, 위촉장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우승 총장님은 대학 차원에서 3S 혁신 전략으로 글로벌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중심 목표로 두고 멘토단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시며, 멘토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께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위촉식 이후 진행된 만찬 행사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그간의 소식을 나누고, 멘토단 활동 보고를 공유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우승 총장이 5기 멘토단 멘토분들께 한분 한분 위촉장을 수여했다.



김갑순 멘토단장이 글로벌 멘토단 4기 성과 발표하는 모습

북텍사스 동문회 동문 만찬 행사

Texas

북텍사스 동문회(회장 이강일)는 작년 2021년 11월 2일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Coyote Ridge Club에서 총동문 만찬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한양대학교 동문들과 함께 가족 및 지인들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동문들의 얼굴에는 서로를 향한 반가운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동문들은 준비된 음식과 함께 정을 나누고 옛 추억을 떠올리며 즐거운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동문소식 및 2021년 사업계획을 공유하였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감사패 수여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애정을 갖고 동문회 운영에 힘써주시는 최명섭 후원회장님, 이강일 회장님께 공로패를, 오명자 전화장님, 박성진 부회장님, 김지연 총무님께 감사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총동문회 행사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문들과 회장단들의 많은 도움을 힘입어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이니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문회가 더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동문 만찬 행사, 북텍사스 동문 단체 사진



김우승 총장이 북텍사스 동문에게 모교의 현황과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남가주 동문회 2021 송년의 밤

Los Angeles



2021 송년의 밤, LA 동문 단체사진

남가주 동문회(회장 신한준)는 지난 2021년 12월 18일 LA 월셔 블루바드에 위치한 The one Event Venue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HGCEO 동문회와 북가주, 달라스, 시애틀 동문들도 자리해주었고, 함께 남은 한 해를 보내며 반가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회 2022년 계획과 그간의 소식을 나눴고, 한 해 동안 수고해주신 허진 수석부회장님, 하승일 고문 겸 골프회장님, 조병용 부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열린 '한양 동문 노래자랑'에서 동문들은 각자의 흥을 뽐내는 시간을 가졌고, 남가주 동문회 채승윤 총무가 우승의 영광을 가져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오랜만에 마련된 자리였기에 더욱 즐겁고 행복한 연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도 한양 동문들이 건강하게 한 해 보내고 다시 한 자리에 모이길 희망합니다.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5기 위촉식 단체사진



HGCEO 모교 방문하여 총장과 함께 오찬을 가졌다.



송년의 밤을 즐기는 동문 모습

HGCEO 모교 한양대학교 방문 & 송년의 밤

2021년 12월 2일 Great Wolf Lodge에서 HGCEO(회장 노상일) 송년의 밤 축제가 나눠졌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동문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로 수고해 주신 각 기수 회장단 여러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풍성한 송년의 밤을 만들어주신 모든 동문님들, 먼길 하와이에서 와주신 하와이 동문님들, 뛰어난 талан트로 멋진 장기자랑을 준비해 주신 1기, 6기, 7기, 8기 동문님들까지! 올해의 수고를 같이 나누고 행복한 2021년을 마감할 수 있던 멋진 날이었습니다. HGCEO 총동문회장 노상일 회장님과 동문 여러분이 한양대학교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김우승 총장님, 오성근 경영부총장님, 황희준 대외협력처장님을 비롯한 이상경 경영대 교수님, 전상경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의 진심어린 환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양대학교를 두루 둘러보고 한양의 미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다는 동문분들의 감동어린 소감이 미국까지 전해졌습니다.

후배 이끄는 전 세계의 한양인들!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한양대는 국내대학 최초로
대학과 동문 선배들이 함께 뭉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글로벌 취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 멘토단이 참여하는
정규·비정규 창업 교과를 운영하고,
멘토링, 투자연계형 글로벌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취창업 활성화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한양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022년 창업중심대학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처럼 한양대학교는 CEO 사관학교의 명성에 걸맞게 다양한 창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로 6주년을 맞은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도 한양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자들을 돕기 위해 세계 무대에서 활약 중인 동문 선배들과 함께 멘토단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은 학생창업자들의 해외 창업을 독려하고 국내 유망 초기 창업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마련된 한양대만의 글로벌 네트워크다. 국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창업마인드를 함양해 해외 창업 성공률을 높이는게 목표다. 해외 현지 창업 과정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까지 아우르고 있다.

글로벌 멘토단은 지난 2017년 미국 실리콘밸리 지역, 북가주 동문들로부터 시작됐다. 1기 멘토단은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동문 30여명이 참여해 수십 차례의 온라인 멘토링, 글로벌 창업 트렌드 특강, 글로벌 현지 창업자를 위한 창업 공간 지원 등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2기부터 스탠퍼드대학과 구글, 애플 등에서 활약하는 IT와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전문가들이 대거 합류했으며, 3기에서부터 베트남 하노이, 중국 상하이 지역 멘토단을 추가로 위촉하면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멘토단은 미국 32명, 베트남 3명, 중국 7명, 총 42명의 멘토로 이뤄져 있으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신소재기술, 자율주행, 빅데이터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주요 영역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 법률가, 글로벌파트너십 네트워크 전문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인이 함께해 글로벌 스타트업에 꼭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후배들에게 풍부한 실전 경험을 전수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은 창업 생태계 선순환 구조 구축에 큰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Interview



“생생한 글로벌 지식 전하는 창구로 큰 의미”

김갑순 (전자공학 90)글로벌 스타트업 5기 멘토 단장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 90학번이고,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한양대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장을 맡고 있는 김갑순 (영어명 Kevin Kim)입니다. 저는 1996년에 SK텔레콤 공채 1기로 사회생활 시작 후, 회사 분들과 함께 2000년에 WiderThan이란 벤처 회사를 공동 창업하여 2005년에 Nasdaq에 상장당한 이후, 2012년부터 삼성전자 북미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가주 동문회가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을 시작하게 된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젊은 후배들과 함께 할 프로그램을 고민하다가 글로벌 인턴십 역량을 배양할 목적으로 2017년 당시 이영무 총장님 주도로 스타트업 멘토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으로 활동 중인 동문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재학생 및 졸업생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선배들의 멘토링을 통해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는데, 벌써 5기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멘토단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현재 활동 중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여쭙습니다.

현재 멘토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단의 중점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비정기적인 창업자 멘토링이고, 다른 하나는 상반기에 저희 멘토단이 본교 창업지원단과 함께 진행하는 정식 수업 (3학점,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이고, 마지막으로 개별 멘토분들이 학교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선배 이야기나 실리콘밸리 트렌드 강의입니다. 요즘은 좀 더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미주지역 계시는 동문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저희 임태석 동문회장님 이하 훌륭한 많은 미주 다른 지역 동문 선배님들이 저희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보다 많은 젊은 후배들이 멘토단이라는 채널을 통해 동문회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각 멤버들이 저희 멘토단을 통해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동문 선배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동문 선배로서, 업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시작한 지도 5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재학생 또는 동문 후배들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창업, 취업, 유학 등의 과정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드리는 멘토링을 통해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미리 경험하고,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면서 좀 더 자신만의 기회를 많이 가져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불어, 이제는 10대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한국과 그 한국인을 필요로 하는 세계 무대에 더 많은 후배들이 도전해서 자신만의 색깔과 자리를 만들어 갔으면 하고, 그 과정에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론과 실기를 모두 갖춘 멘토단 프로그램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실시

- 실리콘 밸리 스타트업 트렌드 특강: 글로벌 기업 트렌드 및 실리콘밸리 동향 공유, 학생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형식의 특강 진행
- 실리콘밸리 멘토단 화상특강: 스타트업토크콘서트, 실전창업워크숍 등 정규 수업 중 화상특강 진행
- 학점과정 강좌 신설: 2020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학점과정(3학점) 강좌 [창업기초: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링] 신설.

미국 실리콘 밸리, 중국 상하이, 베트남 하노이 멘토단이 참여해 글로벌 스타트업 성장 전략 트렌드 공유

온·오프라인 창업멘토링 및 현지 진출 지원

-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스카이프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멘토링 진행
- (예비)창업자 현지 진출을 위한 사무공간, 네트워크 지원 등 실질적 도움
- 실리콘밸리 탐방 프로그램 "Go Global, Be Global!" 진행

Story

“창업 서포트하는 멘토에서, 개발팀 기술고문으로”

서정욱 멘토 (전자통신공학 92학번)



글로벌 스타트업 멘토단 5기 총무로 있던 중, 글로벌 창업·실습 과정의 일환으로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양대 재학생에게 집중 멘토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업에서 의료 영상기기의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다루고 있다 보니, 참여 명단 중 생명과학과 18학번 이승현 학생의 ‘색각 이상자들을 위한 서비스’ 사업이 눈에 들어왔고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천 색각 이상자인 이승현 멘티는 어린 시절부터 색각 이상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 생활 도중 본인의 꿈을 창업으로 이뤄보겠다는 결심을 하였고, 전역 후 창업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온라인을 통해 이승현 멘티의 1인 팀인 Dalton과의 첫 멘토링을 시작하였고, 의사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이승현 멘티가 갖고 있는 문제인식과 비전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오류가 많은 기존 색각 이상 검사를 대신하여, Dalton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보다 저렴하면서도 정확한 색각 이상 검사를 제공하는 것. 둘째, 스마트폰의 카메라 영상을 통해 컬러정보를 제공하여 색각 이상자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현 멘티가 보여준 문제인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비전에 충분히 공감하였고, 기술적 아이디어와 함께 구상중인 Dalton 스마트폰 앱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니 창업을 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 이후 계속된 창업 멘토링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아이디어 발굴 및 펀딩 방법, 그리고 특허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로 한양대 재학생 2명이 팀원으로 합류하면서 2021년 2학기 한양대학교 창업동아리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시장 조사와 선행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안과 교수님이 의학 고문으로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영대 주관 창업경진대회 (2nd HUBS Young Lion Competition)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경영대 교수님들의 경영 관련 멘토링도 함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는 이승현 멘티를 포함한 기획팀 3인과 저를 포함한 개발팀 3인으로 예비창업팀을 구성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벤처기업협회의 전국 단위 창업경진대회 참가 중입니다. 멘토로서 출발한 저는 현재 기술 고문으로서 알고리즘 개발과 MVP제작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으며,



Dalton 창업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후에는 CTO로 펀딩과 기술개발에 직접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목표로는, 올해 하반기에 앱 런칭과 법인 설립, 시드 투자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타트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후배들을 돕자는 생각에서 시작했던 멘토링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씩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면서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승현 멘티의 열정과 더불어 한양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모교가 참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여기 실리콘밸리에 다른 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졸업 후에도 모교와 연결되어 이와 같은 건설적인 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다른 학교 소식들은 아직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예상되는 난관들과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앞으로도 많이 있겠지만, 선배님들의 격려와 도움으로 좋은 결과들을 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리가 만드는 한양,
한양이 보여줄 미래

사랑의 마음을 모으는 48시간

‘기빙데이 한양’

기빙데이는 나눔의 문화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글로벌 무브먼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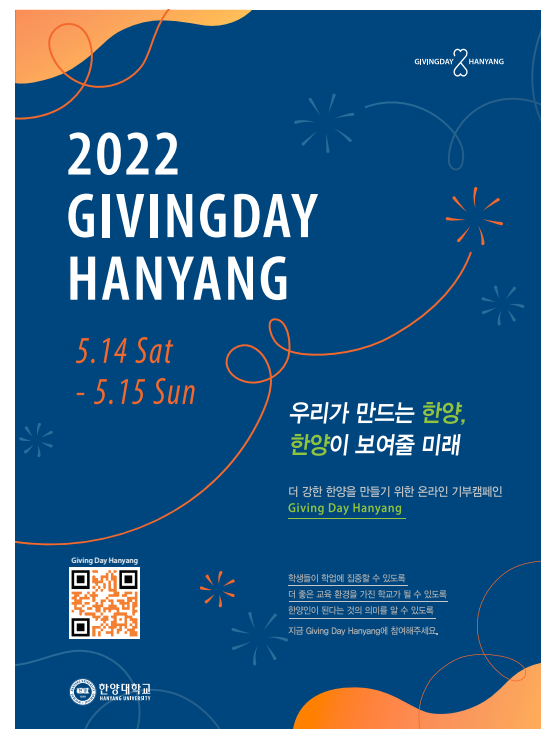
작년 국내 대학 최초로 한양대학교에서 시작됐다.

올해 ‘2022 기빙데이 한양’은 미국에 설립된

한양국제재단과 함께 한다.

미주지역 거주하는 동문들도 올해부터는

행사 참여를 통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2012년 미국에서 시작된 기빙데이(Giving Day)는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린 기빙투즈데이(Giving Tuesday)’로 시작된 기부 캠페인이다. 미국의 전통적인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블랙 프라이데이 등 쇼핑 시즌 이후의 소비에너지를 자선과 기부로 돌리는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양대학교가 작년 국내 대학 최초로 이를 도입해 ‘기빙데이 한양’을 개최했다. 온라인 웹과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정해진 시간 동안 캠퍼스별, 학과별 장학기금과 건축기금을 모금했다. 특히 기부에 온라인 쇼핑물의 형태와 챌린지 등 다양한 오락적 요소를 더해 개고기념일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만들었다. 65학번부터 21학번 신입생까지 총 724명의 동문이 참여했고, 총 3억 1천만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이렇게 모인 장학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되었다.

기빙데이 한양은 재학생과 동문, 교직원 등 모든 한양의 가족이 마음을 모아 후배들과 학교를 응원하는 캠페인이다. 올해는 특히 미국에 설립된 한양국제재단과 한양대학교가 함께 공동 주최하면서 미주지역에 거주하는 동문들도 행사 참여를 통해 IRS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온라인과 모바일 웹으로 진행되는 기빙데이는 해외에 있는 동문들도 지역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기빙데이 한양, 간편하게 참여하자



그간 물리적 거리로 인해 참여가 어려웠던 해외 동문들도 이번 기빙데이 행사를 통해 학교의 개교를 기리며, 한양대의 건학정신인 사사랑의 실천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2022 Giving Day Hanyang에서는 ‘학과별 장학기금’, ‘학업안전망 생활장학금’, ‘HOLMZ 네이밍 기부’ 세 가지 기부 캠페인이 진행된다. 참가자는 본인이 졸업한 학과와 대학을 선택해 자신의 학과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부할 수 있다. 또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학생들을 위해, 오로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활장학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으로 모인 생활장학기금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매 월 50만원씩 생활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정된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하여 한양플라자(구 한양복지관) 2층, 4층에 조성된 창의·학습공간인 HOLMZ에 자신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네이밍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기빙데이 슬로건은 ‘우리가 만드는 한양, 한양이 보여줄 미래’이다. 2022 Giving Day은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마련해주고, 학생들이 매일 같이 공부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 한양의 후배들이 보여줄 미래를 기대하며,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인 한양인들의 힘을 이번 기빙데이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모든 학생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 위한 서울 캠퍼스 라이언프라이드 장학 ERICA캠퍼스 미래 생활장학

한양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야 그 이름이 속해서 빛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나서는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활 장학금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기부자님의 응원이 현실 속에 좌절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한양대학교를 더 강하게 만들어 줄것입니다.

요즘들어 자주 겹치는 불행에 지쳐 솔직히 여러 번 주저 많기도, 다 포기할까도 싶었습니다. 그 기로에서 이런 기회를 마주하였음에, 또 그 기회가 운 좋게 제게 와주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학우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 2021 Giving Day Hanyang 장학생 감사편지 중 —



Hanyang Ontact Learning Mataverse Zone 학생복지관 HOLMZ 네이밍 기부



한양대학교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건물 중 하나인 학생복지관(한양플라자)이 HOLMZ로 새롭게 리모델링됩니다. HOLMZ는 1인용 열람실, 오픈 라운지, 코딩실습실, Youtube 방송시스템, VR lab 등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시대에 걸맞는 교육환경으로 구성됩니다. 한양대학교는 이 곳에 기부자님의 이름을 새겨 한양의 모든 구성원들이 기부자님의 고귀한 뜻을 기억하고 한양의 인재들이 그 뜻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글로벌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HY-IBB, IEE, IPT 개원



생명생명과학기술원(HY-IBB) 개원식



한양 에너지환경연구원(HY-IEE) 개원식



한양 맞춤의학연구원(HY-IPT) 개원식

한양대학교는 학제간 융합 연구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원을 설립했다. 생명생명과학기술원(이하 HY-IBB, 원장 배상철)과 한양 에너지환경연구원, 이하 HY-IEE, 원장 정성훈)은 지난해 12월 개원했으며, 올해 2월에는 생명과학연구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양 맞춤의학연구원(이하 HY-IPT)을 개원했다.

HY-IBB는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교수진 80여명을 필두로 바이오 신약과 백신, 분자진단, 스마트 헬스로 기기 등 바이오 관한 연구를 집중하며, 코로나 시대에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에서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HY-IEE는 최근 탄소중립 이슈로 분명해진 에너지와 환경의 불가분의 관계를 강조하며, 미래 친환경 에너지 분야를 주도하며, 지구 환경 문제의 개선을 위한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융합대학, 약학대학, 공학대학, 소프트웨어융합대학, 예체능대학 교수진 40여명이 참여하는 HY-IPT는 학제간 경계를 뛰어 넘어서는 연구를 수행하며, 바이오신약, 표적치료제, 분자치료진단, 세포치료제, 혁신의약 소재, 바이오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연구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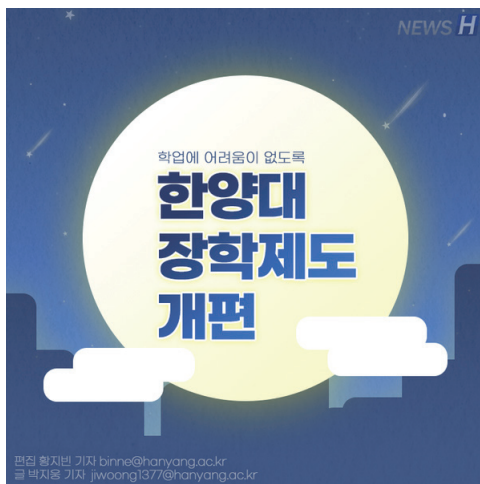
김우승 총장은 “연구원은 한양대의 지속가능형 사회혁신 산학협력 모델”이라며 연구자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던 기존 산학협력연구 방식에서 벗어나 학제 간 연구팀을 연결하고 집단화해 전문성을 제고하여 글로벌 융·복합 공동연구를 통해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제도 개편, 생활장학금 통해 학업안전망 구축

한양대학교가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등록금은 물론 생활비까지 지급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업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학생들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올해부터 ‘생활장학금’을 확대 운영한다. 생활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장학금과 달리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달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된다. 학업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서울 캠퍼스는 기초생활수급층의 학생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라이언에이드장학’과 ‘라이언프라이드장학’도 2023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라이언프라이드장학은 동문들의 기부금을 통해 지급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띄고 있다. ERICA 캠퍼스 또한 올해부터 ERICA 미래로 생활장학제도를 신설한다. 해당 장학은 가계 곤란 학생들의 학업 진념 및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매월 생활비로 지원한다. ERICA 미래로 장학금도 라이언프라이드장학과 같이 기부금을 통해 재원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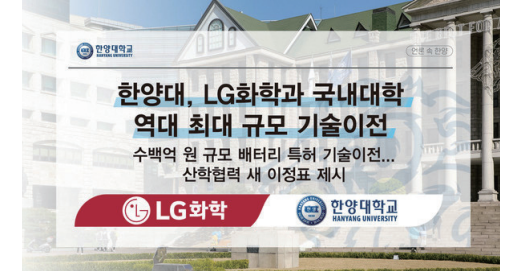


한양대 - LG 화학, 국내대학 역대 최대 규모 기술이전

한양대학교가 LG 화학과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 관련 수백억 원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금액은 국내 대학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술이전료 중 사상 최대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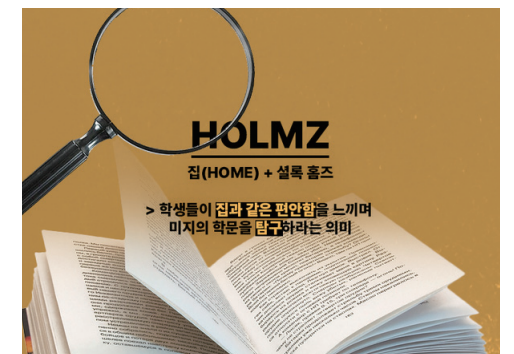
기술이전 계약을 맺은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핵심소재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 만든 전구체에 리튬을 첨가해 만드는데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한다. LG 화학은 이차전지 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양대 에너지 저장 및 변환소재 연구실’의 하이니켈 양극재 신기술 특허 40여건을 이전받았다. 니켈, 코발트, 망간을 섞어 만든 전구체에 리튬을 첨가해 만드는데 전체 배터리 원가의 40% 수준을 차지한다.

한편, 한양대와 LG 화학은 이번 기술이전에 이어 이차전지 소재 공동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산학협력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우승 총장은 “이번 기술이전은 대학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인재양성에 나서 국가전략기술을 키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LG 화학 관계자는 “뛰어난 양극재 특허를 확보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소재 생산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며 “차세대 배터리 혁신 기술과 인재 확보를 위해 산학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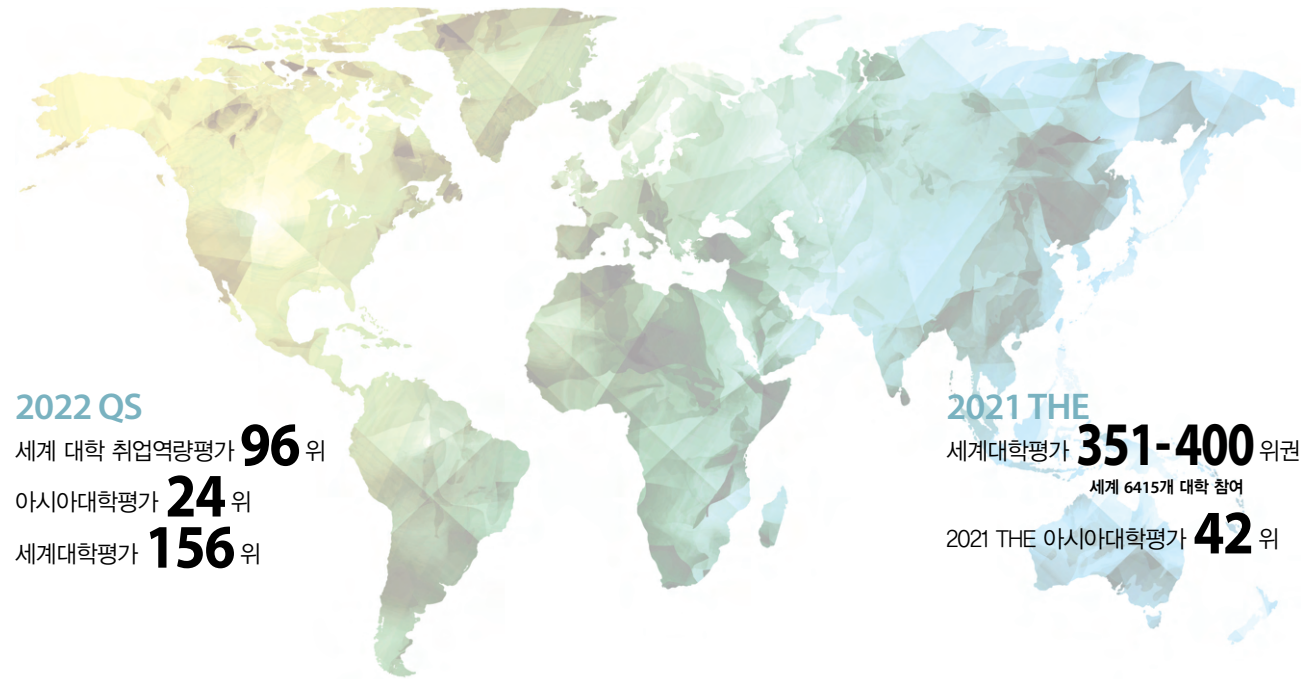
한양플라자, 'HOLMZ'로 새단장하다

한양대역 2번 출구인 애지문을 나서면 가장 먼저 반기는 건물이 바로 과거 학생복지관인 한양플라자이다. 한양의 대표 건물인 한양플라자 2층과 4층에 학습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HOLMZ'(Hanyang Ontact Learning Metaverse Zone) 공간이 마련됐다. HOLMZ 는 학생들이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미지의 학문을 탐구하라는 뜻으로 집(Home)과 탐정 셜록 홈스(Sherlock Holmes)의 의미를 합쳐 만들어진 명칭이다. 2층에는 오픈 라운지, 오픈 캐럴(개인용 열람실), 1~2인용 캐럴 등 학생들의 학습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4층은 편안하게 온라인 학습에 임할 수 있는 VR학습실, 코딩 실습실, 화이트 스튜디오, 유튜브 체험실을 마련했다. 이번 한양플라자의 컨셉 및 기획 설계를 맡은 교육혁신팀은 '기존 학습시설보다 좋은 가구와 기자재를 도입했으며, 개인 무선 충전 좌석 및 오픈 열람대의 설치 등으로 고급스럽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학생들의 학습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 말했다. 그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학생들이 HOLMZ 공간을 통해 편안하게 학습에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한양의 국내 · 외 위상

세계 대학 순위



국내 대학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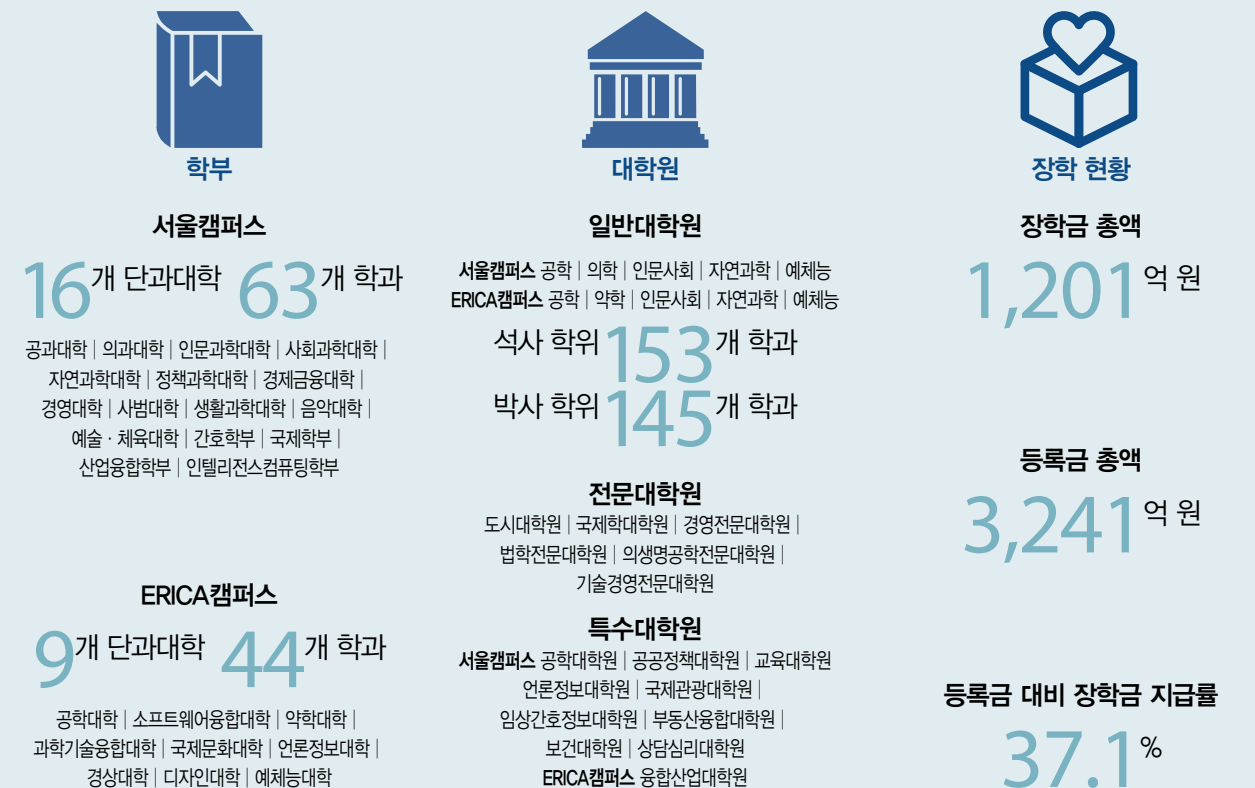


한눈에 보는 한양의 오늘

한양대학교 구성원 및 조직



학부 및 대학원 상세 현황



한양을 키우는 명예, 미래를 만드는 자부심

한양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힘이 됩니다

한양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캠퍼스 곳곳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학생 친화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양은 명석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가진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겸 기계관 신축 기금

교내에 분산되어 있는 기계공학부의 교육 및 연구시설들을 신축되는 기계관에 통합 배치하여 국내 기계공학 분야 TOP3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기계공학부가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대표 학부, 한양 기계인들의 프라이드로 재도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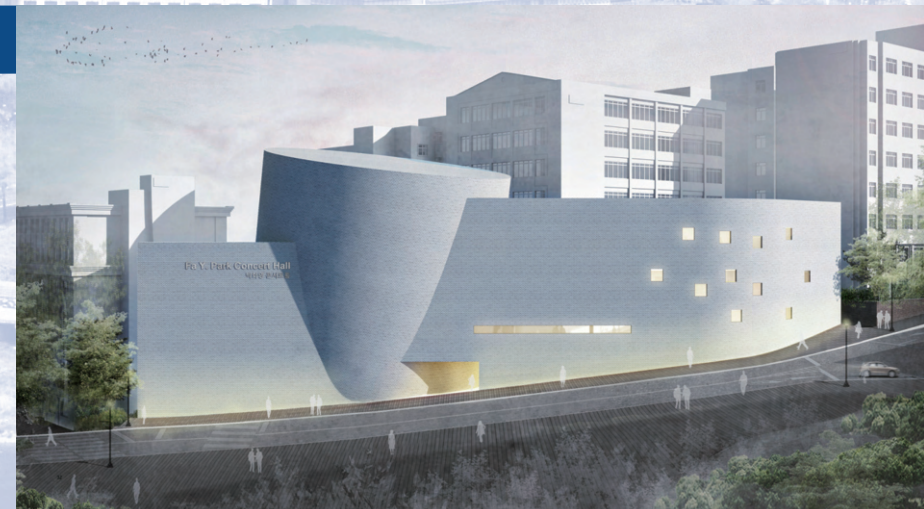


융합전자공학부 전자관 신축 기금

융합전자공학부는 전자 계열 대기업 임원 배출 1위, 중견/중소, 벤처 기업인 배출 1위 등 국내 최고의 전자계열 공학 인재를 양성해 왔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전자관 신축을 통해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자 산업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박화영 음악관 신축 기금

음악대학은 균형 잡힌 실기와 이론 교육을 통해 전문적 예술성과 인성, 지식을 고루 갖춘 음악가 및 음악 교육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음악대학의 숙원 사업이었던 음악관 신축을 통해 대형 강의실을 확충하여 재학생들의 실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

눈부시게 성장하는 모교와 후배를 위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에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최근 2년간 모금현황



2020년 5명

2021년 9명

기부자 현황



2020년 \$1,110,800

2021년 \$4,876,742

기부액 현황

\$10 million 이상	\$1 million 이상	\$100,000 이상	\$10,000 이상	\$300 이상
박화영(성악 79)	황규빈(원자력공학 58)	이중혁(건축/공업경영 58) 정영인(섬유공학 65) 최명섭(체육학 81)	김경숙(간호학 79) 김영기(기계공학 63) 남명옥(간호학 73) 노상일(보험경영 89) 민경원(전기공학 66) 민혜경(식품영양 72) 남가주 동문회 HGCEO 동문회	양우엽(화학공학 58) 윤은석(산업공학 87) 장석진(기계공학 58)
The Paiknam Award	The President's Award	The Leaderboard Award	The Appreciation of Support	Hanyang Supporters

THE BEST for a
BETTER WORLD

한양대학교와 후배들을 위한 투자

한양을 빛낼 동문의 힘!

모교를 향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모아주십시오. 작은 성의가 모여 누군가에는 큰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질 수 있도록 한양대학교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01

수표로 기부

Payable to: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으로
수표를 작성하신 후,
재단 본부로 보내주세요.

02

신용카드로 기부

재단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보내주시거나
전화로 알려주세요.

03

계좌 송금

[은행 정보]
이름 California Bank & Trust
주소 400 20th Street, Oakland
CA USA 94612
전화번호 (510) 419-1800

[수취인 정보]
이름 Hanyang University
International Foundation
주소 369 13th Street,
Oakland CA USA 94612
계좌번호 5796205796
Routing 번호 121002042
SWIFT 코드 ZFNBUS55

Mailing Address 369 13th Street, Oakland, CA, USA 94612
Attn Jong H. Lee
Tel 510-836-7400
Email jhlee@theleeaccountancy.com / hyif@hanyang.ac.kr



2022 GIVINGDAY HANYANG

5.14 Sat
- 5.15 Sun

우리가 만드는 **한양**,
한양이 보여줄 미래

더 강한 한양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 기부캠페인
Giving Day Hanyang

Giving Day Hanyang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진 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한양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지금 Giving Day Hanyang에 참여해주세요.